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종단적 관계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2018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유 아 교 육 전 공

이 미 숙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종단적 관계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유 아 교 육 전 공

이 미 숙

이미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02월



주 심 문 학 박 사 권 연 희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연 우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이 경 화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문제행동	10
가. 문제행동의 개념	10
나. 문제행동의 분류	12
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8
2. 유아의 개인 특성 변수	21
가. 유아의 연령	21
나. 유아의 성	24
3. 부모의 양육 특성 변수	26
가. 양육스트레스	26
나. 양육행동	30
III. 연구방법	36
1. 연구대상	36

2. 연구도구	37
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37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39
다. 부모의 양육행동	39
3. 자료분석	40
 IV. 연구결과	42
1. 유아 부모의 양육 변수와 자녀 내재화 문제행동의 일반적 특성 ...	42
가. 측정변수의 분포	42
나. 변수 간 상관관계	44
2.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연구모형분석	45
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45
나.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유아의 성과 부모 양육 변수 의 영향	48
 V. 논의 및 결론	52
1. 요약 및 논의	52
2.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59

표 목차

<표 1> K-CBCL의 문제행동 하위범주와 내용	14
<표 2> 문제행동의 유형과 구체적 행동	16
<표 3>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22
<표 4> 양육행동의 유형 분류	32
<표 5> 조사시점에 따른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 현황	37
<표 6> 조사시점에 따른 연구대상 부모의 연령 현황	37
<표 7>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38
<표 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	39
<표 9> 부모의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40
<표 10>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43
<표 11> 변수 간 상관관계	44
<표 12> 내재화 문제행동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47
<표 13>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48
<표 14>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	49

그림 목차

[그림 1] 유아 내재화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	46
[그림 2]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48
[그림 3]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결과	51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Some Variables
: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Lee Mi Sook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pattern of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identify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child gender that affec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ange and nurturing-related variables(nurturing stress of parents, and nurturing behavior of par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author analyzed 1,280 documents between the fifth(2012) and seventh(2014) released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a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KICC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pattern of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uggested tha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hift as time progressed. Mean and distribution of the initial valu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linear change model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s mean and

distribution showed significantly in the rate of change, the degree of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diminished from the fifth to seventh year.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initial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s, the lower the rate of change becomes as time passes.

Second, the application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 gender that influences thei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nurturing-related variables of parents(nurturing stress of parents, and nurturing behavior of parents) demonstrated that mother's nurturing stress, controlled nurturing behavior, and benign nurturing behavior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early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n the other h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the change of children age had almost no influence on the change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is implies that mother's nurturing-related variables(nurturing stress, controlled nurturing behavior, and warm-hearted nurturing behavior) gave impacts on the initial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while they had little effects on the change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s children get older.

This study provided discussion topics for people to pay interests i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mong general children problem behaviors and let them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Moreover, it conducted a study to examine childre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 terms of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As results show, their problem behavior empirically presents that

ongoing and cumulative research on the change of age as well as the relation with the association with variables that assume the correlation should be performed.

Limitations and proposals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limited to state the general part of problem behavior and generalize it as this study centered o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mong other children problem behaviors. Accordingly, it would be worth classifying subcategories of problem behaviors, analyzing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in respective subcategory, and comparing them.

Second, situation or time variables are more likely to exist in terms of features of longitudinal study. These numerous situational variables could not be controlled. The more comprehensive follow-up study that includes a number of variables such as the use of medium, health condition, variables associated with family, and the use of organization is need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에는 의사소통하는 대상이 점차 확장되고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면서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유아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극복되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아기에 시작된 문제행동은 유아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고인숙, 이정숙, 2008; 남소현, 김영희, 2000; 유수옥, 2013), 위험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문제행동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경향이 있으므로(이정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이러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은 다양하며, 용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유아의 행동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 유아의 연령은 어떠한지, 또는 그 행동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홍현재, 2013). 문제행동에 대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갈등과 어려움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따라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

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외로움, 우울, 두려움, 위축, 불안, 강박관념 등의 자기 지향적 행동을 말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김연,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내재화 문제를 지닌 유아는 슬픔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수줍음이 심하고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불안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환상에 빠져있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 쉽다(문미영, 2001).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말하며, 억압된 감정의 행동화, 비행, 공격 행동 등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외부로 명확히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을 일컫는다(Achenbach & Edelbrock, 1983: 김연, 2007에서 재인용). 이는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흔히 대항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분열적이 되기 쉬우며,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유아는 심한 정서장애를 보이거나 그들의 행동이 다른 유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드러나게 된다(김연, 2007).

한편,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 자기효능감,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장영은, 2016),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연구(최미나, 신나나, 2015) 등과 같이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연구들도 있지만,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권혜진, 전숙영, 2015), 어머니의 대모애착, 정신건강,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선영, 조민규, 김춘경,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산후우울,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지현, 이진숙, 2016) 등의 연구와 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 및 우울, 위축과 같은 갈등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견하고 대응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지닌다. 특히, 과거에 내재화 문제행동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권명희, 1999).

그러나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유고운, 2016; 이소연, 박지연, 2006)가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고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며(강지현, 2009;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내재화 문제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에 대한 연구(강상, 2016; 김갑순, 박운조, 2016; 김선미, 김영희, 2015; 서선옥, 심미경, 2016;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 2008; 정태숙, 김영희, 2014; 한명숙, 2016)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문제행동에 대한 일회적 측정으로 문제행동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연령의 변화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이나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을 통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가능성의 예측이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변화 양상과 변화를 주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개인적인 변수로 연령에 따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을 변수로 한 연구들에서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나며,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는데(강지현, 오경자, 2011; 배지연, 1998; 유수옥, 2013;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회적 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각 연령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연령 변화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아의 연령과 함께 문제행동 관련 개인적인 변수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유아의 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 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가 있고(윤주화, 이종희, 1999;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현온강, 이현정, 1999), 오경미(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우울함,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과 남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 등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전체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선라(1999)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행동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공격성, 친사회성, 불안-공포, 과잉 행동-산만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의 성차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 변수가 제기되어 왔다. Abidin(1990)은 많은 임상경험과 문헌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란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이경미, 2017에서 재인용). 국내의 여러 많은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유진, 2006;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한지현, 이진숙, 2016).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양육행동’이란 양육자가 유아에 대하여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데 즉, 유아기의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유아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의미한다(교육학 사전편찬위원회, 1996). 이러한 양육행동은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개는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황혜정, 1997). 일반적으로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며 유아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가치나 신념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노연수, 2015).

양육행동에 대해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애정과 통제의 두 축을 사용하여 부모를 권위적 부모, 권위주의적 부모, 허용적 부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부모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하였다(공영숙,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 문제행동에 정적인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강지현, 2009; 김은경, 2009; 김현정, 2001; 문혁준, 2004; 박혜미, 20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김은주, 2016; 박미진, 강지현, 2012;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임현주, 2016)에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상관관계 또는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임을 이해하고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력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통적 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날 양육은 부와 모가 함께 해나가야 할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으므로(권혜진, 2010; 김정원, 김유정, 2007; 김지현, 2017)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 모두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7차 자료를 바탕으로, 만 4-6세까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의 성 및 부모의 양육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패널자료는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자료로서 종단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 추이를 탐색하고 아동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사회·문화적 요소, 교육기관, 가정의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혜성, 2016).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해 구축된 한국아동패널은 부모, 가정 및 육아지원 등의 전반적인 아동의 경험과 아동발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장명림, 신나리, 박수연, 2006; 최윤경, 배윤진, 송신영, 임준범, 이예진, 김소아, 김신경, 2014).

이러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의 복잡

한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방법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이 대표적인데, 이 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시간 축에 따른 변화를 다룬 모형으로 시간에 따른 개인차의 발달에 있어 반복측정 된 지표의 속성을 대표하는 잠재변수를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속한다(Mason, 200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와 성장은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될 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기의 내재화 문제행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며 유아의 성 및 부모의 양육 변수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가능한지 검증해 봄으로써,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실천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 변화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연령, 성) 및 부모 양육 변수(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연령, 성) 및 부모 양육 변수(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가.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s)이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하며(Achenbach & Edelbrock, 1983), 이러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중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K-CBCL 1.5-5 도구의 하위척도 중 내재화 문제행동 문항의 측정 점수를

의미한다.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0).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Index-Short form(PSI-SF)을 토대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도구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이란 양육자가 유아에 대하여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으로서, 유아기의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유아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의미한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본 연구에서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의 ‘양육방식’ 척도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제작한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를 부모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제 행동

가. 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수용 가능한 행위를 정의하는 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김연, 2007).

문제행동이란 용어는 1950년대 초기까지는 사회적 부적응 socially maladjusted)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 오다가 1950년대 이후 Freud의 심리학적 영향을 받아 정서장애(emotional handicapped)라는 용어로 쓰여 왔으며, 그 후 1960년대 후기에 이르러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강조되었다(신은혜, 1984). 문제행동의 양상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일컫는 용어도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 비정상(abnormal),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행동장애(behavioral disturbances), 역기능적 행동(behavioral dysfunction),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행동에 관한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결국 학자들 간에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목록들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이귀숙, 2008).

문제행동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Kauffman(1981)은 유

아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유아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이찬숙, 2008에서 재인용). Garber(1984)는 유아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치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찬숙,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유아의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어떤 사회적 상황 하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누가 그 행동의 적절성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문제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홍현재, 2013).

이밖에도 Ross(1974)는 문제행동을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행동으로 주위 어른들에 의해서 그 행동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고 판정될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귀숙, 2008에서 재인용). Bower(1969)는 학교라는 환경을 강조하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다섯 가지 행동 중 한 가지 이상을 분명하게 보이면 문제행동이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 경우란, 첫째, 문제행동을 아동이 지능적 요인, 감각적 요인, 혹은 건강상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학습 불능을 가지는 경우, 둘째, 친구나 교사와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셋째,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행동이나 감정이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넷째, 일반적으로 우울하거나 불행한 기분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째, 개인적 혹은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 동통, 그리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이다(이귀숙, 2008에서 재인용).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로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공격성, 적대성, 과잉행동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적응행동을 의미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억제, 철회와 같은 내적인 문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박미진, 2012에서 재인용).

문제행동에 대한 국내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성영혜(1992)는 문제행동을 유아와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신숙재와 정문자(1998)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유아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목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미현(1996)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문제 행동을 사회적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동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정의 내렸다.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적·정서적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재화 또는 외현화 된 역기능을 의미하며,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나. 문제행동의 분류

문제행동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행동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임상 전문가들이나 정신 의학적 영역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류체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분류체계로 크게 양분된다(이귀숙, 2008). Kauffmann(1981)은 전자를 정신의학적 분류(psychological classification)라고 하였고, 후자를

행동 영역적 분류(behavioral dimension classification)라고 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1994)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DSM-IV에서는 아동기의 문제행동 영역을 정신지체,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틱 장애, 그리고 배설장애와 분리불안장애나 선택적 함구증과 같은 기타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의학적 분류에 의한 기준들은 정상적인 보통의 아동들을 평가하기 보다는 임상적 수준의 장애를 지닌 아동들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이귀숙, 2008).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상 아동들의 행동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분류로는 교사용 설문으로 이루어진 Quay와 Peterson(1987)의 수정된 행동문제 체크리스트(RBPC: 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와 Achenbach(1991)의 문제행동 체크리스트(CBCL: Child Behavior Checklist)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BC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한 후 국내 아동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도하여 K-CBCL(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을 제작하였다. K-CBCL은 Achenbach(1991)의 12가지 척도에 6-11세에만 적용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emotional lability)을 포함하여 총 13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Achenbach(1991), Achenbach와 Rescorla(2000)는 문제행동을 갈등과 어려움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갈등과 문제가 내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불안, 우울, 위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갈등과 어려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며 공격성, 과잉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는 사회적 미성숙, 비현실적이거나 기이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성문제, 정서불안정, 그리고 이들 문항을 모두 합산한 총문제로 구분하고 있다(서선옥, 2016).

K-CBCL을 토대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및 기타 하위 척도들의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K-CBCL의 문제행동 하위범주와 내용

문제행동의 범주	개념 및 내용	비고
내재화 문제행동	위축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하며 수줍어하는 등 사회적인 위축과 철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신체 증상 어지러워하고 몸이 쭈시고 아프며 두통이나 의학적 증거가 없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우울/불안 외롭다고 불평을 하고 잘 울며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것.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이고, 가출을 하는 등의 비행적 행동을 말함.	
	공격성 말다툼이나 싸움을 자주 하고, 허풍을 치고 자랑을 많이 하며,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회적 미성숙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고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발달상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비사회적인 측면을 의미함.	
사고의 문제	강박적 사고, 없는 소리를 듣는 것, 강박적 행동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	

주의집중문제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등 주의집중력의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를 의미함.
성문제	지나치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놀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 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행동 등을 말함. 4-11세
정서 불안정	잘 울고, 샘이 많으며 분노, 발작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의미함. 6-11세
총문제	문제행동 정도를 지수화 할 수 있도록 전체 문제행동 문항을 합산한 것을 말함.

출처: 이귀숙(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과정 및 발달유형의 단기 종단적 탐색.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행동 영역적 분류에서 문제행동의 유형은 검사 유아의 유형이나 검사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Bower(1969)는 지능적 요인이나 감각적 요인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인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정상적 조건하에서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한 경우, 우울하거나 불행한 기분에 젖어있는 경우, 개인적 혹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체증상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시하였고(안숙희, 2011에서 재인용), Essa(1988)는 공격적·반사회적 행동, 교란시키는 행동, 파괴적 행동, 감정적·의존적 행동, 활동 참여 상의 문제행동, 섭식습관과 관련된 행동, 복합적인 문제행동 등 7개영역으로 문제행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2003)는 관심 끌기 행동, 힘 행사하기, 파괴적 행동, 철회적·소극적 행동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안영진, 이성숙(2001)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생활 습관, 지적 능력, 사회성, 정서 및 정신 장애, 기타의 행동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황

혜정(2005)은 교사 및 부모용 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검사의 틀을 기초로 문제행동을 크게 외현적 문제행동, 내면적 문제행동, 그리고 혼합형 문제행동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문송이(2008)는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집단 활동 방해, 부적절한 기본생활 습관, 또래와의 갈등, 안전하지 않은 행동 및 놀이, 암묵적인 규칙 위반 등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학자들이 제시한 문제행동의 유형 및 구체적인 행동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문제행동의 유형과 구체적인 행동

분류 학자	문제행동 유형	구체적 행동
Bower (1969)	지능적 요인이나 감각적 요인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정상적 조건하에서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한 경우	
	우울하거나 불행한 기분에 젖어있는 경우	
Essa (1988)	개인적 혹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체증상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공격적·반사회적 행동	때리는 행동, 물어뜯는 행동, 사물을 던지는 행동, 다른 유아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동, 욕하는 행동, 별명을 부르는 행동,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 뇌물을 제시하는 행동, 훔치는 행동
Essa (1988)	교란시키는 행동	집단 활동 시간을 교란시키는 행동, 적절한 이유 없이 교실을 떠나는 행동, 목적 없이 실내에서 달리는 행동, 실내에서 소리치는 행동, 고의적으로 사물을 떨어뜨려 소리 내는 행동

	파괴적 행동	책을 찢는 행동, 놀잇감을 파괴하는 행동, 변기에 물건을 버리는 행동, 종이를 낭비하는 행동, 다른 유아의 작업을 파괴하는 행동
	감정적 · 의존적 행동	자주 우는 행동, 화 잘 내는 행동, 자주 빠치는 행동, 아기언어를 사용하는 행동, 손가락 빠는 행동, 오줌싸개, 교사에게 매달리는 행동, 관심을 끌려는 행동, 징징거리는 행동
	활동 참여 상의 문제행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행동,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 집단 활동시간에 수줍어하는 행동, 한 가지 놀잇감만 가지고 활동하려는 행동, 대근육 활동을 회피하는 행동, 역할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 말을 하지 않으려는 행동, 짧은 주의집중력
	섭식습관과 관련된 행동	까다로운 섭식습관, 과식, 불결한 섭식습관
	복합적인 문제행동	복합적인 문제행동
	관심 끌기 행동	매달리기, 일부러 서툰 척하기, 가식적인 행동하기, 경쟁심, 익살부리기, 유별난 짓하기, 바보 같은 짓하기, 게으름 피우기, 억지 부리기, 밉살스러운 짓하기
Miller (2003)	힘 행사하기	조종하기, 앙갚음하기, 토라지기, 고집부리기, 약한 아이 괴롭히기, 반항하기
	파괴적 행동	파괴성, 공격성, 경멸하기, 불신하기, 분노의 표출, 울화 폭발, 반항하기
	철회적 · 소극적 행동	주기적 자기 자극, 사회적 상호 작용 거부, 스트레스의 내면화, 어리석음과 절망감 나타내기
안영진, 이성숙 (2001)	생활 습관	식사 문제(과식, 이식, 구토, 식욕부진 등), 수면 문제(잠투정, 수면장애 등), 배설 문제
	지적 능력	정신 지체, 학습 장애(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 학습 장애), 주의력 결핍
	사회성	고집, 사회적 위축, 품행장애, 공격성
	정서 및 정신 장애	불안 장애, 공포, 강박 신경증, 유아기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기 정신 분열증, 유아기

및 아동기 자폐증	
기타의 행동상의 문제	조음 장애 및 말더듬기, 틱 행동, 거짓말하기, 흠치기, 집단 활동 방해
외현적 문제행동	공격성(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 파괴적 공격), 과잉행동(주의산만, 과잉운동), 반사회성(비행, 반사회적 행동)
내면적 문제행동	정서문제(불안, 강박, 기질적), 정신증, 사회적 위축(고립, 자기중심적)
혼합형 문제행동	미성숙 문제(언어문제, 용변문제), 습관문제, 성문제
집단 활동 방해	주의 산만행동, 끼어드는 행동
부적절한 기본생활습관	편식, 좋지 못한 식사태도, 양치질 중 장난,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행동, 정리정돈 안함
또래와의 갈등	놀잇감에 대한 소유권 문제(역할 갈등 문제), 친구를 때릴 때
안전하지 않은 행동 및 놀이	위험한 행동, 전쟁놀이
암묵적인 규칙 위반	놀잇감을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지고 갈 때,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줄 수 없는 물건을 기관에 가지고 왔을 때

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상황 중 하나인 학생들의 폭행사건, 집단 괴롭힘 등의 학교 폭력 문제가 교육 전문가들로 하여금 유아 시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순자와 유수옥(2012)의 연구에서 2006년 이후부터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연구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에서 조기진단과 개입 및 적절한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박미진, 강지현, 2012; 이선영, 조민규, 김춘경, 2015; 최정은, 2016; 한지현, 이진숙, 2016),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아 개인 및 가족, 또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강지현, 2016; 권혜진, 전숙영, 2015; 김진경, 2013; 우수정, 2016; 채영문, 곽수진, 2017), 그 외에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통합치료 사례연구(이향숙, 2006) 등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 통제와 부정적 정서의 다중매개효과를 다룬 연구(최정은, 이소연, 2017)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파악한 연구(김선희, 2016) 등과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보다 그 수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유고운, 2016; 이소연, 박지연, 2006)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 크게 유아 개인 내적 변수와 유아 개인 외적 상호작용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내적 변수로 유아 기질(강지현, 오경자, 2011; 공영숙, 2012; 안숙희, 2011; 이찬숙, 현은자,

2008), 성 및 연령(강혜경, 2003; 구선라, 1999; 임현주, 2015; 장영숙, 조정애, 2000), 정서 지능(고인숙, 이정숙, 2008; 이찬숙, 현은자, 2008), 사회적 유능감(이찬숙, 이채호, 2009; 이찬숙, 현은자, 2008), 도덕성이나 인지 능력(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인 외적 상호작용 변수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김숙희, 2012; 이유진, 2006;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한지현, 이진숙, 2016),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공영숙, 2012; 국형운, 2012;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김은경, 2013; 김은주, 2016; 박혜미, 2010; 이대경, 2014; 정숙희, 2011; 차선희, 2013; 홍향기, 2015), 부부관계 및 부부갈등(김리진, 정옥분, 2009; 김미정, 김영희, 2011; 김연, 황혜정, 2008; 윤혜미, 최문정, 2006;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교사-유아 관계(문송이, 2008; 문은식, 김미희, 2011, 오경희, 신유림, 2010), 가정의 경제 및 소득 수준(김미정, 김영희, 2011; 노연희, 강지현, 2011; 장현실, 2010; 정미라, 권정윤, 이민정, 2009) 등의 다양한 변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수들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영숙, 조정애(2000)는 유아의 연령별로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나 만 4세의 경우 공격성과 과행동성 산만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만 6세의 경우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2004)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과 위축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우울과 비전형 행동, 과잉행동과 위축 같은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태숙, 김영희(2014)의 연구에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가정생활이 직장으로 유입되는 가정-직장 갈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방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6)는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2016)의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유아변수, 어머니변수, 또래관계변수 간의 관계가 다를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 내적·외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내적 변수로 연령 변화와 성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 유아 개인 외적 변수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어 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유아의 개인 특성 변수

가. 유아의 연령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개인 변수로 유아의 연령을 들 수 있다.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배수진, 2009)를 기초로 연령과 스트레스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Wallen(1993)은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우며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요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Kuczen(1997)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음 <표 3>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 3>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Kuczen, 1997)

연령	스트레스 요인
2세	규칙 지키기, 고집, 사회성 결여, 자기중심, 격리불안, 배변훈련, 잠자는 시간, 짜증, 안정을 주는 물건, 과로, 두려움 등
3세	소유욕, 질투, 격리불안, 혼동, 가벼운 거짓말, 상상 속의 친구, 두려움, 말, 활동 정도, 배변, 식사, 질문 등
4세	불안, 과장, 친구 사귀, 권리 주장, 성, 활동정도, 두려움, 관심 등
5세	승인, 유치원(학교), 격리불안, 걱정, 자위행위, 자랑하기, 꾸물거림, 이름 부르기 등

이러한 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배지연(1998)의 연구에서는 만 5세아가 만 4세아에 비해 또래 관련 유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만 4세아는 만 5세아에 비해 개인 관련 유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미(2003)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4세 유아와 5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등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서로 다르게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oleman, Wolkind와 Ashley(1977)의 연구에서는 연령 차이에 의한 문제 행동 수준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성과 관련되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적응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고인숙, 2008에서 재인용). 이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에서 공격적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구선라(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문제행동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연령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내면화 문제행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만 5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임소희, 2015)가 있고, 유아의 문제행동이 만 4세 유아에 비해 만 5세 유아의 공격성과 외현화 행동문제, 우울과 비전형 행동문제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도 있다. 그리고 교사가 지각한 문제행동에 대해 유아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 4세 유아는 공격성, 과행동성 산만이 높게 나타났고 만 6세 유아의 경우 불안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장영숙, 조정애,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나며,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남을 말해준다. 이는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린 연령의 유아일수록 자기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표현능력이 미숙하여 울음, 짜증, 고함지르기, 물건을 넘어뜨리기, 물건 던지기 등 공격적 표현경향이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자기표현능력의 발달에 따라 이를 언어화 혹은 다양한 내재적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임소희,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가 만 5세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였고(강지현, 오경자, 2011),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해 공격 행동, 불안행동, 산만행동 등 전체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강혜경, 2003). 그리고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는 1년 후에도 지속성이 매우 높게 유지되어 위험수준의 문제행동은 연령이 증가해도 감소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이처럼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연령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나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연령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도울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2012)-7차(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의 연령 변화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유아의 성

유아의 연령과 함께 문제행동에 있어서 개인 변수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유아의 성이다.

성차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공격성, 과잉 행동, 짜증 및 비행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영숙과 조정애(2000)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과 불안, 그리고 과행동성 산만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성차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혜진과 이완정(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강혜경(2003)은 유아의 성에 따른 문제행동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공격행동 및 산만행동, 전체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우수경(2007)의 연구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고 불안해하며, 산만함과 같은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성차의 영향력에 대해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함께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여아는 남아보다 불안 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하였고, 윤주화와 이종희(1999)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과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미성숙 행동과 정서불안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현온강과 이현정(1999)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여아가 남아보다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고, 이경숙과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2004)도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성, 과잉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집중 문제가 더 많은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우울과 위축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권수진과 오새니,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는 위험집단의 경우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아가 더 많이 보이고,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경민(2005)과 구미향, 이양희(2003)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경우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퇴행, 강박행동 등 내면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임현주(2015)와 강지현,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지만 성 차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옥과 이정덕(199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의 영향력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오경미(2003)는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우울함,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과 남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

등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전체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선라(1999)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행동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공격성, 친사회성, 불안-공포, 과잉행동-산만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미자(1995)는 영유아기 타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두려움, 과민성/주의산만 요인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성차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성에 따른 차이를 종단적 관점에서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3. 부모의 양육 특성 변수

가. 양육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인간의 감정, 사고 과정과 육체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로 정의되며, 개인이 기대한 바와 실제와 차이가 날 때 혹은 개인과 조직 등의 시스템에 균형이 깨질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진수, 2005). 스트레스는 상황의 조건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 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걱정 혹은 근심을 느끼게 하며(정재은, 1993), 심한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자아 기능이 저하되고 적응 능력이 제한을 받아 분노, 무력감, 무기력, 수

치감을 느끼게 된다(이정균, 1984).

스트레스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기에 누구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으며,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과 같은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Lazarus, 1993).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이에 따른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숙희, 2012).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는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부모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양육을 분담할 수 있었지만, 현대의 핵가족에서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및 요구수준은 높아진 반면 양육 분담에는 제한이 있어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부모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이연숙, 2016).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Crnic와 Greenberg(1990)는 양육스트레스란 개인과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으로써 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나 부담감이라고 하였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번거롭게 느끼며 힘들게 느끼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가족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연숙, 2016에서 재인용).

Abidin(1990)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임상경험과 문헌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양육스트레스란 결혼이라는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이경미, 2017에서 재인용). 그리고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유아의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부모의 자녀 양육은 부모 자신의 능력이나 부모의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식하거나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어머니-자녀의 관계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연숙, 2016에서 재인용).

고성혜(1994)는 양육스트레스란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으로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개인과 가족이 발달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제 내의 긴장과 압력이라고 하였고, 안지영(2001)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며,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정순(2003)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써,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라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일상적 스트레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성요인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송주미, 1992; Abidin,

1990; Berkey & Hanson, 1991; Luster, 1987)은 이혼, 가족원의 죽음,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활사건을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Crnic와 Greenberg(1990)는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이는 성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념은 부모 역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이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짜증,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일상생활 중에 초래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백영숙, 2007에서 재인용). Lazarus(1984)도 역시 중요한 생활사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과다할 경우 그 가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유아기는 아동기의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백영숙, 2007에서 재인용).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연숙(2016)은 만 3-5세 유아의 연령 중 만 3세 유아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해 김숙희(2012)의 연구에서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

제 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유진, 2006;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한지현, 이진숙, 2016).

여영주(2016)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결과로 유아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보다 잘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축하기 위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정적·사회적 지원 체계를 보완할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양주연, 2014).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모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연관되며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백영숙, 2007).

나. 양육행동

인간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유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가정, 사회 및 문화적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 가정은 인간의 지적발달과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고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시키는 곳이다(김문정, 2003). 특히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양육환경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이란 양육자가 유아에 대하여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데, 즉 유아기의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유아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의미한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이러한 양육행동은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개는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황혜정, 1997).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Becker(1967)는 양육행동을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공영숙, 2012에서 재인용).

Fishbein(1975)은 양육행동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써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노연수, 2015에서 재인용). Atwater(1992)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가 관계 맺는 양식으로 애정을 주고, 지도하며, 가르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박은성, 2013에서 재인용).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인 행동이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과 자녀가 나타내는 요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원영(1983)은 양육행동을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의해보면,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이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인 행동이며 유아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가치나 신념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노연수, 2015).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양육행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양육행동의 유형 분류

학자	유형
Symonds(1949)	지배-복종, 거부-수용
Schaefer(1959)	애정-적대, 자율-통제
Baumrind(1967)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태도
정원식(1980)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이종승, 오성심(1982)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이원영(1983)	애정적-중요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성 조장-독립심 권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의존성-독립성
박성연, 이숙(1990)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합리적인 지도, 적극적인 참여, 성취, 일관성 있는 규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형을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은 복종형과 익애형으로,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

부형으로,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는 부모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으며 지나친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 중간 정도를 취하는 양육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는 양육행동을 체계화하는데 있어 공헌하였지만, 부정적 양육행동만을 언급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박은성, 2013에서 재인용).

이후, 정상적 부모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1959)는 신생아기 초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여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 애정·적대의 축과 자율·통제의 두 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MBRI는 양육행동의 절대적 측정이 아닌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도록 구성되어 있다(박은성, 2013에서 재인용).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애정과 통제의 두 축을 사용하여 부모를 권위적 유형(authoritative), 권위주의적 유형(authoritarian), 허용적 유형(permissive)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부모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그러한 태도에 내포된 이유를 설명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유형을 말한다. 반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정해진 행동표준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매섭게 벌을 주고 다른 부모에 비해 냉담하고 덜 온정적인 유형을 설명한다.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는 자기표현과 자기규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을 표준적인 양육자 또는 모델이기 보다는 자원제공자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벌을 거의 주지 않으며, 비지배적이고 비요구적이며 비교적 온정적인 유형을 보이는 부모를 말한다(김지신, 199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양육행동’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양식으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노연수, 2015)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났으며(박혜미, 2010), 부모가 유아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면서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한 경우,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적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문혁준, 2004). 한편, 어머니가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무관심하게 되고, 정서적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적절히 제공해주지 못해 유아의 문제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지현, 2009; 김은경, 2009). 또한 어머니의 과잉보호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시적인 태도와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유아의 공격적이거나 반항적 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일 경우 자녀들은 심리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화를 잘 내거나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며, 공격적인 문제해결 성향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비일관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규칙이나 기대를 명확히 하는데 방해가 되어 유아의 부적절한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음도 보고되었다(김현정, 2001). 이러한 부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 양육 특성 변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단편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령 변화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에 기초하여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5차(2012)-7차(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되는 패널연구이다.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해오고 있는 연구자료다(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연구자는 패널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에 지원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2017. 6. 15.),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 허가를 얻은 후에 패널 자료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 연구논문 작성 및 제출과 함께 석사논문용으로 관련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패널 2,150명의 자료에서 5차(2012)-7차(2014)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자료 중 연구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결측이 있는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개년도 조사에서 유아의 성, 부와 모의 양육행동,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경우만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280명 유아 및 부모의 자료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655명(51.2%), 여아가 625명

(48.8%)이었으며, 5차년도부터 7차년도에 이르는 유아의 월령 및 부모의 연령 현황은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조사시점에 따른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 현황(단위: 개월)

차수	범위	M	SD
5차	48-54	51.00	1.21
6차	60-66	62.56	1.29
7차	72-79	75.05	1.40

<표 6> 조사시점에 따른 연구대상 부모의 연령 현황(단위: 세)

차수	부/모	범위	M	SD
5차	부	23-54	37.26	3.97
	모	23-51	34.79	3.70
6차	부	24-55	38.56	3.96
	모	24-52	36.09	3.63
7차	부	25-56	39.29	4.01
	모	25-53	36.83	3.69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의 측정에는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중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K-CBCL 1.5-5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외현화 문제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를 제외한 내재화 문제행동

(internalizing problems)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 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정서적 반응성’ 9문항, ‘불안/우울’ 8문항, ‘신체증상’ 11문항, ‘위축’ 8문항으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0점으로,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는 1점으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는 2점으로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극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차의 경우, $\alpha=.87$, 6차는 $\alpha=.88$, 7차는 $\alpha=.87$ 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신뢰도는 <표 7>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7>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차수	내재화 문제행동(문항수)	Cronbach's α
5차	정서적 반응성(9)	.74
	불안/우울(8)	.72
	신체증상(11)	.57
	위축(8)	.65
	전체(36)	.87
6차	정서적 반응성(9)	.75
	불안/우울(8)	.71
	신체증상(11)	.56
	위축(8)	.65
	전체(36)	.88
7차	정서적 반응성(9)	.74
	불안/우울(8)	.73
	신체증상(11)	.57
	위축(8)	.65
	전체(36)	.87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토대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의 3가지 하위변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에 해당하는 12문항 중 한국아동패널 2007년도 사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척도의 11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다음 <표 8>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

차수	양육스트레스(문항수)	Cronbach's α
5차	부의 양육스트레스(11)	.86
	모의 양육스트레스(11)	.88

다.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는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의 ‘양육방식’ 척도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복희 외(1999)의 양육행동척도는 Baumrind의 이론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실정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총 33문항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녀와의 의사소통, 양육의 즐거움, 독립성 격려 등과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 20문항과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적 양육행동 1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온정적 양육행동 6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 6문항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통제적 양육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다음 <표 9>와 같이 산출되었다.

<표 9> 부모의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차수	양육행동(문항수)	부/모	Cronbach's α
5차	온정적 양육행동(6)	부	.87
		모	.86
	통제적 양육행동(6)	부	.82
		모	.76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월령, 부모의 연령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의 성¹⁾, 부모의 양육 변수 간의 종단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변화의 추정과 변수의 변화에 있어서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되, 개인의 변화와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속한다(Curran, 2000; Mason, 2001).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과 부모의 양육 변수(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스트레스, 통제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으로는 Tucker-lewis Index(TLI)와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이용하였다. 홍세희(2000)와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가 제시한 기준, 즉 TLI와 CFI의 값이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는 그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8이하이면 양호, .10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평가하는 구분을 따랐다.

1) 유아의 성별을 더미변수(남아 0, 여아 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부모의 양육 변수와 자녀 내재화 문제행동의 일반적 특성

가. 측정변수의 분포

주요변수의 구분은 크게 시변변수(time varying variable)와 시불변변수(time invariant variable)로 구분된다. 시변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로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을 의미하고, 시불변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로 유아 부모 양육 변수(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와 유아의 성을 의미한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5차 내재화	8.38	6.42	1.13	.07	1.59	.14
6차 내재화	7.40	6.23	1.41	.07	3.09	.14
7차 내재화	6.67	5.92	1.30	.07	2.03	.14
5차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2.73	.65	.05	.07	-.04	.14
5차 어머니 양육행동통제	3.37	.51	-.29	.07	.50	.14
5차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3.66	.54	-.05	.07	.17	.14
5차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2.39	.59	.01	.07	-.09	.14
5차 아버지 양육행동통제	3.25	.60	-.06	.07	-.05	.14
5차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3.55	.59	-.14	.07	.46	.14

위의 <표 10>에서, 먼저 시변변수인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 6, 7차 각 시점에서 문항수별 평균값을 응답자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5차년도와 6차년도 유아 문제행동은 평균 8.38(SD=6.42)에서 6차년도 평균 7.40(SD=6.23), 7차년도 평균 6.67(SD=5.92)으로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불변변수인 5차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3(SD=.65), 5차년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 3.37(SD=.51), 5차년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평균 3.66(SD=.54), 5차년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평균 2.39(SD=.59), 5차년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 3.25(SD=.60), 5차년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평균 3.55(SD=.59)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유아 및 부모의 변수의 값을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값과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3미만으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09)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에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a	b	c	d	e	f	g	h	i	j
a	1.00									
b	.00	1.00								
c	.00	.56**	1.00							
d	.02	.56**	.63**	1.00						
e	-.01	.28**	.25**	.25**	1.00					
f	-.02	.05	.03	.03	.03	1.00				
g	.04	-.20**	-.18**	-.17**	-.54**	.14**	1.00			
h	-.03	.13**	.14**	.13**	.40**	.01	-.25**	1.00		
i	-.04	-.01	.02	-.01	.00	.25**	.04	.01	1.00	
j	.02	-.09**	-.07*	-.09**	-.24**	.06*	.30**	-.48**	.18**	1.00

* $p < .05$, ** $p < .01$

주. a: 유아의 성

b: 5차 내재화 문제행동 c: 6차 내재화 문제행동 d: 7차 내재화 문제행동

e: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f: 어머니 양육행동통제 g: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h: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i: 아버지 양육행동통제 j: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위의 <표 11>을 살펴보면, 먼저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성과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연구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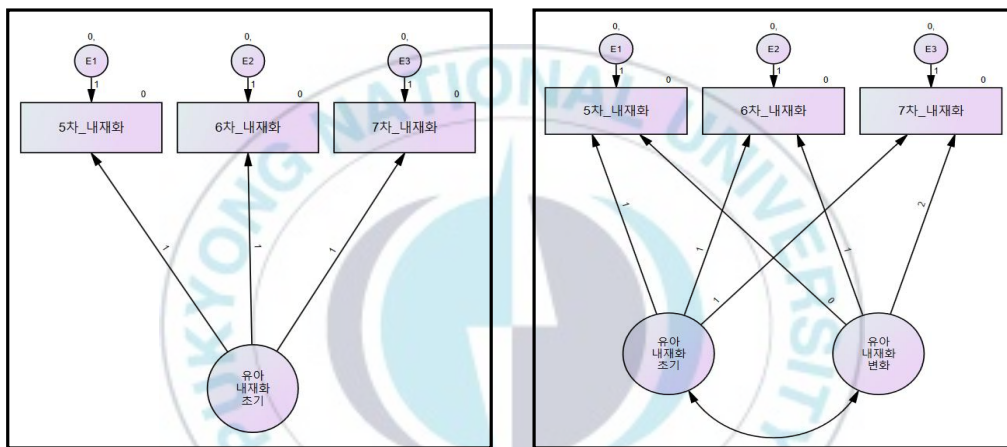
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부모 양육 변수와 자녀 내재화 문제행동 간 변화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구성개념의 반복측정 자료가 잠재선형변화모형을 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세 시점의 평균의 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수에 대해 무변화모형 또는 선형 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감소 또는 감소-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변수의 경우에는 무변화(nochange)모형을 적용하였고,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비선형 모형은 네 시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본 연구에서는 세 시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된다. 각 변인들의 변화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경로도는 [그림 1]에 나와 있고, <표 12>는 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



[그림 1] 유아 내재화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세 시점에서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수를 이용하여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무변화모형에 비하여 선형변화모형이 모두 적절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에서 χ^2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도가 다르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와 RMSEA 지수를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 결과, 무변화모형에 비하여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우수하므로($\Delta TLI=.065$, $\Delta RMSEA=-.147$)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은 선형변화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내재화 문제행동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N=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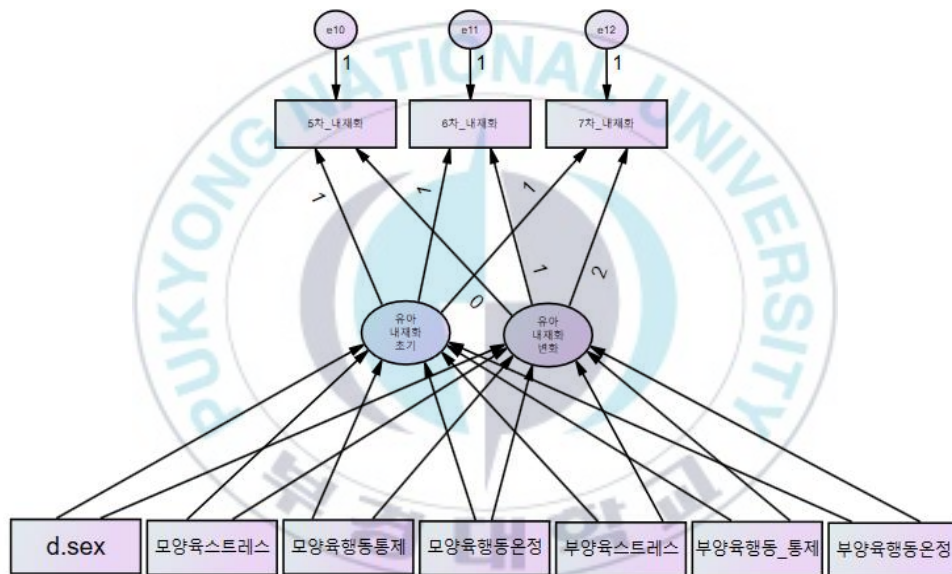
구분	χ^2	df	p	TLI	RMSEA	초기치		변화율		공분량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 유 아 내 재 화	113.83	4	.000	.985	.147	7.36***	22.30***	-	-	-
선 형 변 화	.907	1	.341	1.000	.000	8.32***	23.83***	-.84***	1.79*	-.21***

* $p < .05$, *** $p < .001$

<표 12>에서 보듯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변화율에서도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평균이 8.32($p < .001$)이고 변화율의 평균이 -.84($p < .001$)로 이는 5차년도에서 7차년도에 이르는 동안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5차년도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 8.32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84 정도씩 감소했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분산도 23.83($p < .001$)이고 변화율이 1.79($p < .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치와 기울기의 변량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이 -.21($p < .001$)로 나타났는데 공분산이 음수이므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은 선형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초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시간에 따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유아의 성과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유아의 성과 부모의 양육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이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chi^2(df)$	p	TLI	CFI	RMSEA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5.80(8)	.669	1.005	1.000	.000

<표 13>과 같이 χ^2 값은 5.80으로 p값이 .05보다 높게 나타났고, CFI와 TLI가 모두 .95이상이었고, RMSEA가 .05이하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이론모형에서 확인한 경로계수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유아의 성	→ 유아 내재화 초기	.001	.000	.329	.004	.997
유아의 성	→ 유아 내재화 변화	.161	.058	.161	.997	.31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유아 내재화 초기	2.242	.296	.321	6.987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유아 내재화 변화	-.219	-.103	.157	-1.392	.164
어머니 양육행동통제	→ 유아 내재화 초기	.663	.069	.336	1.972	.049
어머니 양육행동통제	→ 유아 내재화 변화	-.133	-.049	.165	-.807	.420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 유아 내재화 초기	-.987	-.108	.378	-2.614	.009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 유아 내재화 변화	.148	.057	.185	.798	.425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 유아 내재화 초기	.320	.039	.337	.950	.342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 유아 내재화 변화	-.012	-.005	.165	-.071	.944
아버지 양육행동통제	→ 유아 내재화 초기	-.174	-.021	.290	-.599	.549
아버지 양육행동통제	→ 유아 내재화 변화	.044	.019	.142	.310	.757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 유아 내재화 초기	.169	.020	.332	.510	.610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 유아 내재화 변화	-.127	-.054	.163	-.780	.435

위의 표 <표 14>에서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유아의 성 및 부모의 양육 변수(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스트레스, 통제적 양육행동,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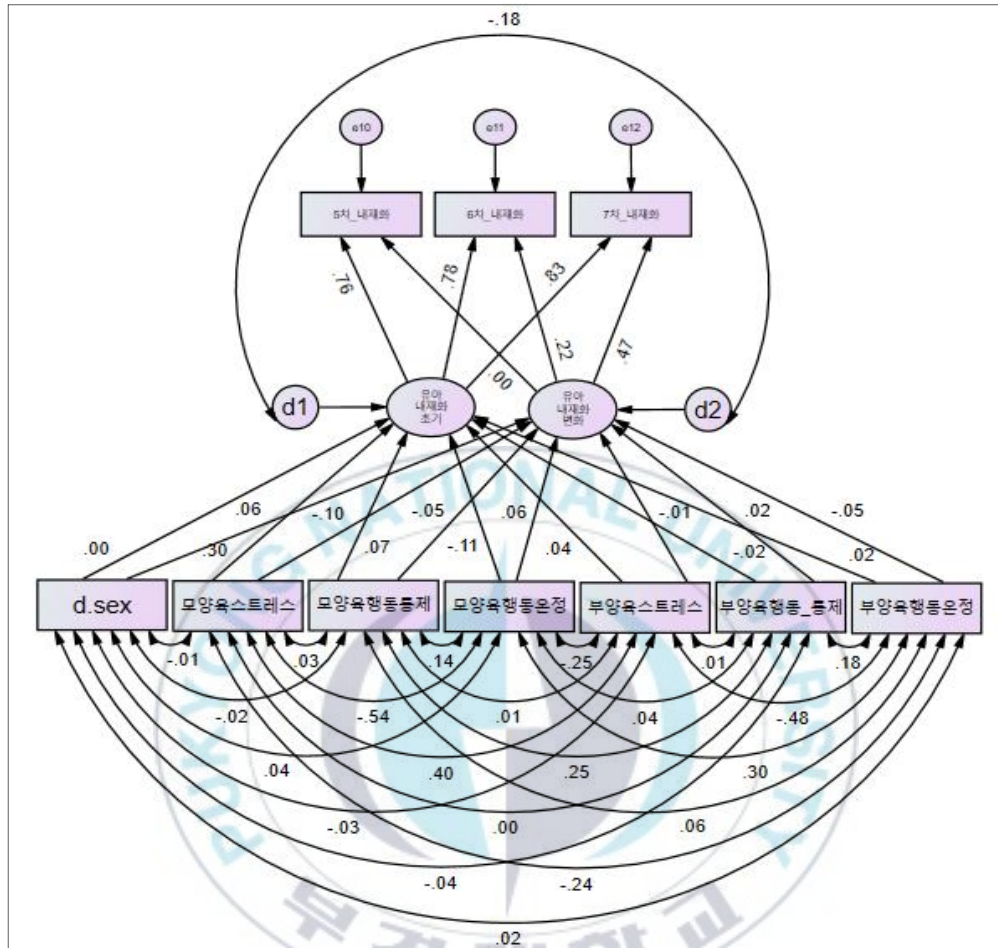
정적 양육행동)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변수는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변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유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2.242)을 미쳤지만, 변화율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도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유아 연령이 증가해도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유아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663)을 미쳤지만, 변화율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는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도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유아 연령이 증가해도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유아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987)을 미쳤지만, 변화율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는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도 낮은 것을 의미하지만, 유아 연령이 증가해도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최종모형을 <표 14>에 의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갈등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 외부로 쉽게 문제행동이 드러나지 않지만 대인관계나 사고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강지현, 2009).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 양상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변화율에서도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면서, 5차년도에서 7차년도에 이르는 동안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시간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등의 문제행동이 감소함을 보고 한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2004)의 연구와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에서 심한 의존, 협응력 부족, 주의력 부족, 심한 공격성, 사회

적응력 부족,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본 임민택(2006)의 연구내용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년간의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들에게서 나타난 내재화 문제행동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은 유아들의 변화율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함으로써 윤현수 등(2011)의 연구 내용을 지지한다.

장영숙과 조정애(2000)는 유아의 연령별로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나 만 4세의 경우 공격성과 과행동성 산만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만 6세의 경우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임소희(2015)의 연구와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2004)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인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연령별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특징은 비교해볼 수는 있지만 내재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준이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4세 및 5세 유아가 3세 유아에 비해 공격성, 주의산만, 사회성, 도덕성,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습관이나 통제력 조절 등의 훈육을 받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함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남소현과 김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유아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어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종단적인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수준을 세분화하여 변화와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연령 변화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이들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의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 변수(양육스트레스, 통제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성)의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성에 따른 영향력을 밝혔던 연구들(김경민, 2005;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윤주화, 이종희, 1999; 최보가, 임지영, 1999; 한미현, 1996; 현온강, 이현정, 1999)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강지현, 오경자, 2011; 김미자, 1995; 오경미, 2003; 임현주, 2015)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단순히 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사회성 등의 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 변수가 가지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연령 변화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이들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찬숙(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의존적일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임민택(2006)은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가진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는 위험 집단의 경우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어머니 변수(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와 관계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효식과 윤혜옥, 연은모(2016)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 이유진(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김은경(2013)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혜미(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통제적 양육행동과 이러한 문제행동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201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해 부모의 양육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힌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아버지 양육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해 아버지 양육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하며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아버지 양육 변수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아의 성, 부모의 양육 변수의 영향력을 밝히고 있지만, 종단적인 관점에서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유아의 성이나 부모의 양육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맥락 속에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한 영향력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종단연구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 양상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유아 개인 및 부모 양육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한편,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은 낮았다.

둘째, 초기의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 변수(양육스트레스, 통제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화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유아의 개인 내적 변수인 성이나 부모의 양육 변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단적 관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머니의 양육의 중요성을 밝힌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2014)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하며,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유아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범주 중 신체증상 관련 문항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증상에 대한

문항이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두통을 호소한다.’,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배가 아프다고 한다(복통이나 장 경련).’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다른 하위범주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의 한계로 보고한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에만 중점을 두어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일반화 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하위범주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하위범주에 관련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단 연구의 특성상 상황이나 시간적인 변수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를 모두 통제하지 못하였다. 매체 이용정도, 건강상태, 가족관련 변수, 기관이용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상(2016). 힐링스토리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사회성,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141-162.
- 강지현(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지현(2016). 어머니와 교사가 보고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 **교육치료연구**, 8(2), 291-310.
-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강혜경(2003).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고인숙(2008). 교사용 유아 문제행동 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인숙, 이정숙(2008).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1), 93-111.
- 공영숙(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6).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구미향, 이양희(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

- 등교육연구, 16(1), 341-363.
- 구선라(199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교사-유아관계와 유아행동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형운(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명희(1999). 자기주장훈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유아변인, 어머니변인, 또래관계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권혜진, 전숙영(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79-96.
- 김갑순, 박윤조(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 김경민(2005). 성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2008). 유아개인, 가정환경, 지역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353-373.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2), 89-121.
- 김리진, 정옥분(2009).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문제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16(1), 1-20.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1995). **영·유아기 타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김영희(2011).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9(5), 59-70.
- 김선미, 김영희(2015). 어머니의 부부관계, 우울, 신체화증상과 수면의 질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 219-243.
- 김선희(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5), 421-446.
- 김숙희(2012).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2007).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 한태숙, 황혜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27-298.
- 김연, 황혜정(2008).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3), 23-50.
- 김은경(2009).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 영향. **놀이치료연구**, 13(3), 35-45.
- 김은경(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11(1), 5-28.
-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원, 김유정(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17).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 5세 자녀의 전반적 발달문제: 한국아동패널 1차, 2차, 3차, 6차년도 자료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201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여부에 따른 동적가족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61-72.
- 김현정(2001). 부모의 훈육 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 성별 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노연수(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연희, 강지현(2011).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 간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3), 343-363.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송이(2008). **유치원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행동지도와 교사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김미희(201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0(2), 59-81.
- 문혁준(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TV/비디오 시청 중재와 아동발달특성. **아동학회지**, 25(1), 47-60.
- 박미진(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강지현(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은성(2013). **부모양육태도와 유아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박혜미(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출판사.
- 배수진(200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옥(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정서조절능력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선옥, 심미경(2016).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 및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4), 1-15.
- 성영혜(1992). **아동사회학**. 서울 : 문음사.
-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2008). 유치원 운영시간, 부모의 학습관여,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35-51.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은혜(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장애에 관한 상관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숙희(2011).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진, 이성숙(2001). 유아생활지도. 서울: 삼광출판사.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주연(2014).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영주(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아동 문제행동의 관계 : 영성,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미(2003).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주) 휴노컨설팅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희, 신유림(2010). 유아-교사의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교사 변인. 유아교육연구, 30(2), 339-357.
-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1.
- 우수정(2016).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41-55.
- 유고운(2016). 부모-자녀 상호작용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연구: 내재화 문제행동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옥(2013).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문제행동 발생을 군집화 연구. **아동학회지**, 34(6), 57-75.
- 윤주화, 이종희(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안정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617-627.
- 윤혜미, 최문정(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경미(2017).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귀숙(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과정 및 발달유형의 단기 중 단적 탐색.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대경(2014). 유아기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조민규, 김춘경(2015). 어머니의 대모애착, 정신건강,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155-177.
- 이소연, 박지연(2006). 학급차원의 놀이 프로그램이 정서적으로 위축된 초등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1(2), 219-239.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1), 163-181.
- 이순자, 유수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 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 127-157.
- 이연숙(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진(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균(1984).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종승, 오성심(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 행동과학연구 Research Bulletin**, RB-11(1), 1-15.
- 이찬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숙, 이채호(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사회적 유능감,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3(5), 27-44.
- 이찬숙, 현은자(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23-238.
- 이향숙(2006).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감소를 위한 통합치료 사례연구: 몬테소리교육과 집단치료놀이의 통합치료를 중심으로. **몬테소리 교육연구**, 11, 53-76.

- 임민택(2006).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희(2015).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임현주(2016). 유아의 자아개념, 어머니의 양육변인, 사회적 지원이 유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5), 191-211.
- 임혜성(2016). 한국아동패널(PSKC)을 활용한 연구동향: 복합자료(Complex Sampling Survey Data)분석의 방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391-412.
- 장명림, 신나리, 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영숙,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장영은(2016). 어머니 자기효능감,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4), 1-29.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장현실(2010). **저소득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권정윤, 이민정(2009).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 비교. **유아교육연구**, 29(6),

359-378.

정숙희(2011).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1980).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정재은(1993).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태숙, 김영희(2014).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및 가정-직장간
갈등이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
육복지연구**, 18(2), 175-195.

정혜진, 이완정(2009).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문제행동.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27(3), 1-12.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
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차선희(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
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영문, 곽수진(2017).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1-13.

최미나, 신나나(2015).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83-310.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최윤경, 배윤진, 송신영, 임준범, 이예진, 김소아, 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최정은(2016).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은, 이소연(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통제와 부정적 정서의 다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151-171.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한명숙(2016). 부모의 인성 리더십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 인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6(1), 121-140.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지현, 이진숙(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산후우울,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6), 69-82.
- 한진수(2005). **어머니의 생활 스트레스가 학령전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향기(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재(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 · 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황혜정(2005). 유아의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부모용 교사용 검사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2), 235-257.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chenbach, T. M.(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Rescorla, L. A.(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 1/2-5; Language development survey; Caregiver-teacher report form*. University of Vermont.
- Berkey, K. m., & Hanson, S. M.(1991). *Pocket guide to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Mosby Inc.
- Curran, P. J.(2000). A latent cur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New methods for new questions*, 1-42.
- Essa, E. L.(1988). 유아행동지도-생활지도와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지침

- (지성애 역, *A practical guide to solving preschool behavior problems*). 서울: 양서원. (원본 1983 발간)
-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E: Merrill.
- Kuczen, B.(1997). **아동의 스트레스**(강영자, 박성옥, 양명숙 공역, *Childhood stress: how to raise a healthier, happier, child*). 서울: 양서원. (원본 1987 발간).
- Lazarus, R. S.(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uster, T., & Ka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3), 301-311.
- Mason, W. A.(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83-102.
- Miller, D. F.(2003). **아동 생활 지도**(조희숙, 공숙자, 김선옥 공역, *Positive child guidance*). 서울: 창지사. (원본 2000 발간).
-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383-402.
- Quay, H. C., & Peterson, D. R.(1987). *Manual for the revised problem behavior checklist*. Coral Gables, FL: University of Miami.

Wallen, J.(1993). Prot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dangerous neighborhoods. *Children Today*, 22(3), 24-27.

